

공동체 소식



## 부활 제3주일

아버지, 저희 죄를 씻어 주신 성자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셨으니, 저희가 마음을 열어 참으로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함께 한 사제들을 위해 (박호철 베네딕도, 이승용 마태오, 신성국 노엘,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님)

☞ 교황님 기도 지향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으로 위안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 ☞ 4/26(일)까지 참가비 30불과 함께 선교분과장(정수한 베드로)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4/25(토) 오후 5:30
- 장소 : KU 로렌스 성당

구역 회의

- 일시 : 4/2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성모의 밤

- 일시 : 5/1(금) 오후 7:30
- 장소 : 본당
- 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의 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타

- 오늘 중심미사 후, 회관에서 평협회의 있습니다.
- ‘성모의 밤(5/1)’ 미사 때, 가정 꽃바구니 봉헌 받습니다. 또한 개인 봉헌 장미는 전례부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 캔사스 대교구에서 나누어 드린 Rice Bowl을 회수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액을 체크로 봉헌해 주시면 송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34	510	164/502	13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정수한 베드로	문예나 요안나
차주	차호섭 요셉	차서은 세라피나
	김준영 요셉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녜스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한춘희, 유경애
차주	박혜정, 정연식, 장남순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4/12	80명	349불	1,740불
고영방, 정석원, 김창식, 김화년, 문석찬, 박동희, 양경직, 유길수, 은유나, 홍순익(총 9세대)			

☞ 감사헌금 : 익명(1000불)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제자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고난을 겪고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들을 증인으로 파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비추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그분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 그림 묵상

#### 물고기를 드신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행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몸을 위한 빵과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테라사**

### 제 1 독서 : 사도행전 3,13-15,17-19

<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



주님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 제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소서. 저의 의로우신 하느님이며 이 몸이 궁핍할 제 살려 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 기도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충성된 자를 자별하게 다루시나니. 제가 기도할 때이면 주님께서 들어 주시리라. ◎
-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 줄꼬. 이렇듯 말하는 이 여럿이오니. 주님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
- 자리에 들자마자 단장이 깎사오니 든든히 살게 하심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

### 제 2 독서 : 요한 1서<2,1-5>

<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복음 : 루카 24,35-48 <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

# 세 마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 소리” (마태 2,18)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1년의 시간이 흘렀 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구조과정에서 생명을 잃은 고 귀한 죽음들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위로와 힘이 유가족과 실 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 반성과 변화의 노력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고통스러운 사고 수습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미안 하다”는 말을 삼키며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반성하였습니다. 관행을 핑계 삼아 부정과 비리에 눈감고, 안전과 원칙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죄와 물질적 성공과 탐욕만을 추구한 사회 현실이 세월호 비극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 현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그러나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며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사 태에 우려를 표합니다. 조사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모호 한 위원회 구성, 축소된 업무 범위와 인원 등의 내용은 안 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 니다. 사고 발생과 구조 과정의 진실은 투명하게 공개되 어야 합니다. 현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 토하여 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다양 한 논의, 절차, 계획 및 문제들도 숨김이나 왜곡 없이 공 개되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 신은 커질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선 이 실현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 진정한 용서를 청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하여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에 게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도 불투명하

고 불분명하게 처리하며 덮어두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또 다시 비극을 겪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 여러분과 국민에게 청합니다.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사회의 불의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 지 맙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 하며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들의 희생에 대한 형제적 책임 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관심은 사회적 약을 배양하는 영양분입니다. 그 위에 부정과 비리, 온갖 범죄와 사고가 자라납니다.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 며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세는 정의롭지 못한 자세입 니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는 상황을 방관하는 죄 입니다.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가장 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 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7항). 우리는 정치권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복음의 정신으로 깨어 지켜보아야 합니다.

###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비극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바로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어 비극이 자랄 수 없는 정 의로운 사회로 진입하는 역사적 계기로써 기억되어야 합 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 쳐흐르는 세상, 비리와 부정이 참사를 키우지 않는 세상 에서 희생자들은 부활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현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의 취지 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유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리하 여 다시는 이런 통곡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고, 진실과 정의를 선택합 시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 록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문제 가 해결되어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홍식 라자로 주교 -

## 주춧돌

### 제 3 편 자기 성화

#### 제 4 장 내 말을 실행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마태 7,24-25).

#### 【주석】

실행하는 이는 : 이 “실행”은 외적인 실천이나 내적 결단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존재 전체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주석 성경, 신약, 65).

강물이 밀려오고 : 팔레스티나 땅에는 나무가 적고 바위가 많아, 큰 비가 오면 바로 급류를 이룬다(상동).

#### 【설명】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야 비바람과 폭풍을 견디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이러한 삶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다.

#### 【교회의 가르침】

용기는 어려움 중에도 단호하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윤리적 덕이다. 용기는 도덕적 삶에서 유희를 이기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 준다. 용기는 공포를,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 내게 하며, 시련과 박해에 맞서게 해 준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08항).

#### 【어록】

▶ 어느 원로가 말하였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활동도 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행동이지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말은 아닌 까닭이다”(「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제10장, 76항).

▶ 어느 원로는 말하였다. “말은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흡사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가 풍성히 열려 있는 나무는 잎사귀도 풍성하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말도 하게 됩니다”(N 252).

▶ 제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바르지 못한 행동을 거듭해서 습관이 되면 아주 악질로 변해버린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